

<해녀 노 젓는 소리> 창자 이기순 연구

이 성 훈*

<Abstract>

Lee, Seong-hun. 2006. *A Study on Lee Gi-Soon, Singer of <Women Divers' Rowing Song>*.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life of the singer of <Women divers' rowing song> and contemporary events related to the song from the viewpoint about author.

In order to review the singer's life, only what she said about her own life should be recorded, whether it is positive or negative.

Although women divers from Jeju Island mainly go to the main land for better performance, Lee Gi-soon left the island to forget loss of her daughter. The disputes arisen from the relation between Lee Gi-soon and local people in Gangwon-do, mentioned in this study, are not to emphasize conflict between local people and immigrants, but to gain a lesson by drawing attention to the hardship in settlement of immigrants.

As the singer's experience in her life is likely to be revealed in his song or story, e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Lee Gi-soon reflects her own life in her song. Through her song, she expresses her love for the lost daughter and hardships in living in a foreign land.

The flexible words in <Women divers' rowing song>, not directly related to women divers' work, rather have characteristics of lamentation songs. This is resulting from distress in adjusting to new environment and difficulties in working. Those words seem to express suffering in the real life externally, but imply a desire to get out of the hardships internally.

In case studying the singer's life story and <Women divers' rowing song> in artificial conditions, the performance place, circumstance and condition are set and planned by the recorder. The recorder consciously determine the performance place or discourse direction in the place. Given those facts, I tried to identify the singer's 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the song.

* 숭실대학교 강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주제어 : the singer of <Women divers' rowing song>(해녀 노 젓는 소리 창자), performance(구연), life story(생애담), lamentation songs(자탄가), Jeju Island(제주도), the viewpoint about author(작가론적 관점)

1. 머리말

텍스트로서의 민요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서는 민요 연구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민요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누가 어떻게 전승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이되어갈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전승 지역이 너무 넓다. 전승자의 수도 막대하다. 전승 장르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를 현 시점에서 모두 한꺼번에 조사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¹⁾ 이는 민요가 판소리와는 달리 특정인에 의해 전수 받고 전승되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데 연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요의 전승과정과 창자에 대한 연구를 미루어 둘 수 없다.

민요 창자는 생활의 담당자이면서 구연의 주체이다. 그런 만큼 창자 개인의 삶의 궤적이 구연한 민요의 사설 속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창자가 구연한 민요 사설의 이해를 위해서도 창자의 생애 연구는 요청되는 것이다.²⁾ 창자에 대한 조사 연구의 토대 위에서 민요 사설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연구가 가능한 것이라면, 창자에 대한 독자적 연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창자 연구는 기록문학의 작가 연구와도 같다. 민요 창자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더러 있었지만³⁾ 창자의 생애와 민요를 작가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1) 류종목, <사천시 민요의 전승 양상>, 《韓國民謠學》 第7輯, 韓國民謠學會, 1999, p. 122.

2) 이성훈,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p. 487.

3)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연구는 사실 분석이나 현장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였다. 필자는 창자인 해녀의 생애와 사실과의 관계를 고찰한 적이 있지만,⁴⁾ 본격적인 작가론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간 해녀의 생애력과 出稼물질 사례 조사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론적 측면에서 해녀의 삶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고는 기록문학에서 말하는 작가론의 관점에서 해녀의 생애와 민요에 대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해녀 노 짓는 소리>만을 대상으로 하여 창자인 해녀의 삶이 민요의 사실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본고 논의의 출발점이다. <해녀 노 짓는 소리>는 해녀들이 뱃물질 나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던 노래이니 만큼 해녀들의 삶의 궤적이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실 속에 어떻게든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강원도 속초시에 정착한 제주도 출신 해녀인 李基順과 인터뷰한 생애담을 텍스트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하는데 있다. 하나는 창자 생애를 전기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다른 하나는

강진옥, <여성 민요 창자 정영엽 연구>, 《口碑文學研究學》 第7輯, 韓國口碑文學會, 1998, pp. 187-223 ; 나승만,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조사와 사례 분석-서남해 도서지역 민요 소리꾼 생애담 조사를 중심으로->, 《口碑文學研究學》 第7輯, 韓國口碑文學會, 1998, pp. 165-186 ; 나승만, <삶의 처지와 노래 생산 양식의 상관성-村婦, 무당,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김안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第16輯,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8, pp. 181-197 ; 홍미희, <민요 소리꾼 이남조 연구>, 《韓國民謠學》 第9輯, 韓國民謠學會, 2001, pp. 339-363 ; 좌혜경, <제주 민요 歌唱者論>, 《民謠論集》 第7輯, 民謠學會編, 민속원, 2003, pp. 331-355.

- 4) 이성훈, <民謠 提報者의 生涯와 辭說>,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 5) 金榮敦·金範國·徐庚林,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 한림화, 《제주바다 潛嫂의 四季》, 한길사, 1987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崇實語文》 第19輯, 崇實語文學會, 2003 ; 김영·양징자, 정광중·좌혜경 譯,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2004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 2004.

창자의 성격과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본고에 활용된 자료는 졸저 《해녀의 삶과 그 노래》(민속원, 2005, pp. 189-234)에 수록된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소리>와 생애력 조사>이다.

2. 창자 생애의 전기적 고찰

속초에 정착한 제주 출신 해녀 이기순에 대한 조사는 2001년 12월 23일 오후 2시경에 이기순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총 1시간 28분 27초 동안 창자의 생애담과 구연한 민요를 다인정보통신(주)의 보이스레코더 DN-232U 제품으로 녹음했다.⁶⁾ 이기순이 구연한 민요는 <해녀 노 짓는 소리>, <자장가>, <밭 밟는 노래> 등이다.

이기순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출생하여 15살 무렵에 물질을 배웠고, 27살에 경상남도 거제도로 出稼물질을 나왔다. 이기순이 구술한 생애담의 중심축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본토 출가의 원인이 된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 결혼과 생활고, 본토인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먼저 이기순이 본토로 출가한 원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한 원인은 잠수 기술 발전과 인원이 증가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장의 황폐화가 해녀의 출가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⁸⁾ 이처럼 제주도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물질을 나오게 된 것은 보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기순의 경우는 달랐다. 4. 3 사건 이후에 남편이 죽고, 딸마저 교통사고로 잃게 된 것이 본토 出稼의 결정적

6) 이 때 수집한 이기순의 생애력과 민요는 졸고,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崇實語文》第19輯, 崇實語文學會, 2003, pp. 359-507에 발표했고, 후에 졸저,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pp. 189-234에 재수록했다.

7)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p. 43.

8) 후지나가 다케시, <1932년 제주도 해녀의 투쟁>, 《제주도의 옛기록》,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7, p. 93.

원인이었다.

(조): 물질은 제주도서 배우고?

(제): 제주도서 물질이야, 우리 마을에는 머 전부 연날이사 무신 훈 집에 물질 뭐 너다섯 썩은 다 메누리고 딸이고 손지고 다혈 때니까 뭐. 계속 잘 허긴 잘했지. 그 시국 일어나 갖고 스삼 사건에 몬 그러고, 어떠하다 본계는 뭐 신랑도 죽고, 뭐 애기도 아홉 설 먹은 거 차로 굴러 죽였어, 북촌 학교 앞에서. 차로 굴러 죽여두고는 그만 미쳤지. 아홉 설 맥여가 차로 굴러, 나 스무 설에 난 거 차로 굴러 죽이니까 머. 반 미쳐가꼬 신랑도 죽어 불고, 아홉 설 맥여서 차로 그거 굴러 죽여 불고 허니까, 미쳐서. 그런디 스물일곱 설에 저 부산 나온 거라. 그 때 시절엔 이렇게 살아질 생각은 안 허고. 어디 가다가 객선에라도 타며는 물에 빠져 죽을 거. ...<중략>... 북촌만 살다가 애긴 딱허게 차로 굴러 죽이고 나니까, 미쳐서 제주도는 다돌아댕겨서 내가. 어디 저 남원으로 어딜로 미쳐서 돌아댕기다가, 예고, 이젠 제주도선 죽지도 못할 꺼고, 나 육지 나가민, 육지 간다허곡, 객선에 가서 타며는 물에 빠정 죽을 수가 잇겠다해서, 선달(선달, 十二月)에 저 몸빼 하나 입고 옥양목(玉洋木) 적삼 하나 입고 떠나 온 게 죽지도 못허고,(pp. 195-196)⁹⁾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교통 사고로 잃은 딸로 인해 실의에 빠져 제주도의 여러 지역을 유랑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부산행 여객선을 타게 된다. 그렇지만 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기순이 죽음을 택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민의 삶에 대한 강한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김영돈은 제주도는 時空 양면에서 모진 여건으로 뒤떨인 이른바 ‘土瘠民貧’, ‘環海天險’의 섬인데다가 눈물의 역사가 흘러갔으며, 도민들의 삶은 오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기에 제주도민의 의식을忍苦, 不屈하면서 自彊, 力行한다는 명제로 압축한 바 있다.¹⁰⁾

이기순이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제주도 북제

9) 앞으로의 지문 인용은 줄지,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를 따르며 인용문 끝에 이 글의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10)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3, p. 126.

주군 조천읍 북촌리에 거주할 때였다고 한다.

(조): 경허근, 해녀노래를 배운 게 북촌에서 배운 거파?

(제): 북촌에서. 거기서는 서로 이제 하노 짓이라, 짓걸이 짓이라, 막 하잖아.

(조): 하노는 뭐파?

(제): 하노는 큰네, 배 운용허는 거, 그거는 잘 못 짓어. 경헌디 짓걸이엔 헌 건 율이 돌아정 짓는 거. 그런 거 허며는 서로덜 질라고 날리어, 바다에 물에 들어 갈라꼬, 뭐.

(조): 멧 명이 저수파?

(제): 보통 뭐 짓걸이 저올라른, 네 세 척 논 배도 있고, 다섯 척 논 배도 있고, 빨리 갈라고. 짓걸이 두 개 허고, 하노 하나 허고. 어, 그러니까 우리 고향은 이제 그 때 시절에도 순경이 있더라고. 널 메역 조문헌다 허른 오닐 큰축항에, 또 저 동축항 서축항에서 줄을 메여, 줄을 메여가꼬, 이제 배가 다 거기 가 모여실 꺼 아냐. 모여시며는 총을 팡 허며는 서로 앞의 갈라꼬 허다가 옷도 안 입고 물에 빠진 사름 있고, 수경도 안 씌고 물에 빠진 사름 있고 그렇게 해.(pp. 214-215)

(조): 제주도 북촌서 네 저어 그네, 메역허레 갈 때 불러시쿠다, 주로?

(제): 주로 메역만 했주, 그 때는.

(조): 메역허레 갈 때까지 노 짓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 가수파?

(제): 멧 분 안 걸려. 빨르른 얼른얼른 가지, 얼릉 가도 뭐 서로 돌아정 네 짓영, 네 짓고 올라오고 막허고.(p. 216)

인용문에서 살필 수 있듯이, 창자가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처음 접한 것은 고향인 북촌리에서 미역을 채취하러 갈 때였다. 하지만 돛배의 노를 저어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물질작업장까지의 거리가 몇 분이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의 경우 1940년대까지도 돛배를 이용하여 물질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기순이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5살 되던 해인 1939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당시 물질을 다닐 때 탔던 돛배의 노의 종류와 기능 및 돛배의 규모도 알 수 있다. 하노는 배를 운용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키의 역할을 하는

데 크기가 커서 아무나 저울 수 없고 사공이 주로 젓는다는 점, 젓걸이 노는 돛배의 양 옆에서 젓고 해녀들이 젓는다는 점, 노가 3개이거나 5개인 돛배는 배의 뒤쪽 부분인 고물에서 젓는 노인 하노가 1개인데 단지 젓걸이노의 개수만이 다르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해녀들은 주로 미역만을 채취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을 채취하는 작업인 이른바 헛물에 드는 일보다는 미역을 채취하는 게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金料白은 《三千里》에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해녀들은 마치 생복이나 고동만을 채취하는 것으로 소개한 적도 있다.¹¹⁾ 일반적으로 해녀들은 전복이나 소라만을 주로 채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복이나 소라 등을 주로 채취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고,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미역을 채취했었다. 조선시대에 전복을 채취한 것은 어디까지나 진상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사실은 李益泰의 《知瀛錄》에도 기록되었는데, “進上하는 말린 전복인 撻引鰓을 전복 잡는 잠녀는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었는데, 늙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을 캐는 잠녀는 800명에 이르는데, 물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 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전복 캐는 잠녀와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위험한 것을 고루 피하려고만 한다. 이 잠녀들의 괴로움의 차이는 현격하게 다르다. 따라서 장래에 전복잡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걱정하고 또 均役을 시키고 전복잡이를 익히도록 권장하여 미역 캐는 잠녀에게 추인복을 나누어 정하였다.”¹²⁾고 했다. 여러 제보자들에 의하면 미역 채취 기간이 끝나면 헛물에 들기도 했지만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기순은 어릴 적에 북촌리에서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선

11) 金料白,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 《三千里》 創刊號, 三千里社, 1929, pp. 22-23 참조.

12) 李益泰, 金益洙 譯, 《知瀛錄》, 濟州文化院, 1997, p. 85. 進上撻引鰓專責於採鰓潛女九十名而老病居多不能支堪. 採藿潛女多至八百遊潛水中深入採藿無異採鰓女. 而稱以不習抵死謀避均. 是潛女苦歇懸. 殊爲慮將來採鰓無人. 且欲均役而勸習採鰓分定撻引鰓於藿潛.(李益泰, 《知瀛錄》, 增減十事. 肅宗22 [1696년])

울을 익히고, 사설 또한 배웠다. 필자가 이기순에게 제주도 북촌 해녀들이 불렀다는 노래는 다시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하자 다음의 노래를 불렀다.

(조): 제주도 북촌 해녀들 했다는 신세 한탄하는 노래들. 해녀노래 한 번 더 해줍써. 노래를?

(제): 어, 한 번 더 하라고.

...<중략>...

(조): 할머니가 허는 거 혼 번 해봅써.

(제): 우리는 뭐,

5.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삼시 굶엉	무레질 헤영 허
한푼 두푼	번 금전
정든 님 술값에	다들어 간다 하
이여사나 하	이여도사 하

6.

요 네를 지고	어테를 가나
진도나 바다	한 꼴로 가자 하
이여사 하	이여도사나 하
이여디여 허	쳐라쳐라 하

7.

눔의 고데	애기랑 배영
허리지당	베지당 마라 하
퐁퐁 지영	어서나 지고
집으로 가자 하	이여사 하
이여사나 하(pp. 217-219)	

인용문의 5. 6. 7.은 이기순이 제주도 북촌리 해녀들에게 배웠다고 하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이다. 이 사설은 이기순의 개인적인 삶을 노래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녀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던 유형화된 고정

적 사설이다. 인용문 5.와 6.의 “물로 뱅뱅 / 돌아진 섬에”, “진도나 바다 / 한 골로 가자”라는 사설은 본토에 출가물질을 나왔던 체험을 노래한 사설이다. 이는 <해녀 노 짓는 소리>가 제주도 고유의 노동요임에는 틀림없지만, 제주도보다는 본토 남해안의 다도해 지역에서 주로 가창되었던 노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주도보다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다도해 지역에서 뱃물질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예컨대 제주도의 부속도서는 40여개에 지나지 않는데 반하여 전라남도 진도의 부속도서는 250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다수의 해녀들이 다도해 지역으로 출가물질을 나갔다는 사실은 석주명이 밝힌 1910년대의 出稼 해녀 수에서도 드러난다. 곧 1915년경의 출가해녀의 수는 약 2,500명인데 出稼地別로는 경상남도에 1,700, 전라남도 다도해 방면에 300, 기타 500이고, 그 출신지로는 우도의 약 400명을 필두로 종달리, 행원리, 법환리, 위미리 등의 약 100명씩과 기타이다¹³⁾라고 기록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제주도 해녀들은 주로 다도해 지역으로 출가물질을 나갔기 때문에 “물로 뱅뱅 / 돌아진 섬에”, “진도나 바다 / 한 골로 가자”라는 사설을 불렀다고 본다.

“삼시 굶영 / 무례질 해영 허 // 한푼 두푼 / 번 금전 // 정든 님 슬값에 / 다들어 간다 하”나 “놈의 고데 / 애기랑 배영 // 허리지당 / बे지당 마라 하 // 쫑쫑 지영 / 어서나 지고 // 집으로 가자 하 / 이여사 하”는 사설은 자신이 겪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본토로 출가물질 나온 해녀들이 겪었던 딱한 처지를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처지에 동일시하여 내면화한 사설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설은 <해녀 노 짓는 소리>에 흔히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의 사설이다. 본토로 출가물질을 나오는 것은 가난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고서도 물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¹⁴⁾ 이처럼 딱한 처지에 놓인 해녀의 모습을 보거나 들었던 이기순은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용문 5., 7.과 같은 사설의 노래를 불렀다고 본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딱한 처지와 신세를 한탄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물질작업의 노고를 잊게 하고 감

13)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p. 202.

14)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p. 217.

정을 카타르시스 하는 기능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토로 출가물질이 나온 해녀들은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부르며 제주도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역경을 이겨내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주지하듯이 민요의 사설은 서민공동의 참여로써 이루어진다. 서민들은 노래하는 사이에 자신의 삶을 새로이 확인하고 서로 고무하면서 일상적 희비와 생활 의욕을 거듭 환기한다.¹⁵⁾ 이기순은 거제도에서 뱃물질을 다니며, 교통사고로 죽은 딸을 회상하는 사설을 지어 부른다.

(제): ... 거제도 오라서 내가, 내가 지어서 노래를 허니 해녀덜 혼 으남은이다 울었다고.

(조): 혼 번 해봄써.

(제) 8.

엄마 엄마	허는 아기
저 산천에	물쳐나 놓고 허
한라산을	등에다 지고
연락선을	질을 삼아 하
거제도를	멀 허레 오란
받는 것은	구속이고
지는 것은	눈물이로다
이여사 하	

9.

요 금전을	벌어다
우는 애기	밥을 주나 하
병든 낭군	약을 주나 하
혼차 벌영	혼차 먹영
요 금전이	웬말이더냐 하
이여씨 하	이여씨

(제): 내가 애기 죽어돈 오라서 그 노래를 해서, 거제도 사름이 다 울었다

1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3, p. 3.

고.(pp. 219-220)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자신의 딸을 잃은 슬픔을 8.과 같이 엄마를 부르던 아기를 묻어 놓고 한라산 같이 크나큰 비애를 등에 지고 거제도를 뒹하러 와서 받는 것은 남이 팔세하는 구속이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뿐이라고 노래한다. 딸을 잃었고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9.와 같이 물질을 해서 돈을 벌어도 우는 아기를 위해 밥을 줄 일도 없고, 병이 든 남편에게 약을 줄 일도 없다.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지 위한 수단으로 물질을 해서 번 돈이 어찌된 말이더냐고 자탄한다. 8과 9.는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에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의 고정적 사설이 아니다. 창자의 체험을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로 형상화하여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구연자는 제 뜻에 따라 재창조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연하는 잠깐 동안은 바로 詩人인 것이다.¹⁶⁾ 이처럼 이기순은 사설 창작 능력이 남다른 점이 있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이 본토로 출가하게 된 원인은 사별한 자식 때문이다. 대개 해녀들의 본토 출가 원인은 보다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기순의 경우는 달랐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별한 자식을 잊기 위해서가 그것이다. 그래서 인용문 8.과 같은 화소의 사설이 기왕에 간행된 자료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록 이기순이 거제도에서 물질할 당시에는 해녀들 사이에 측은한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울음을 울게 했지만 해녀들의 일반적인 삶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개인적 삶이었기에 널리 전승되지 않았다고 본다. 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 사설을 창작해 끼워 넣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게 공감대를 이룩하지 못한다면 널리 번져 전해지지 못하고 이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¹⁷⁾

다음으로 결혼과 生活苦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기순은 4. 3 사건

16) In the end, it is the performer who is the poet-for the brief moment that he performs.(Paredes, *Some aspects of Folk Poetry*,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6. 1964, p. 22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982, pp. 3-4에서 재인용.

17)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p. 167.

에 남편이 죽고 교통사고로 딸마저 죽자, 제주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부산에 잠시 기착한 다음에 거제도도 가서 물질을 하게 된다. 이 때 巨濟市 長木面 柳湖里가 고향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제): 부산 오랏다가 또 거제도 가서 한 삼 년 살다가, 거제도서 또 혼차 째 은 여저니까 못 살더라고. 영감 하나 만나가고 혼 게, 강안도(江原道) 멩테 바를(明太잡이를) 간데, 멩테바르 온다고 주문진을 따라 오니까. 파도에 또 배는 뿌수와(부수어) 불고, 또 곤쳐 놓으면 또 뿌수와 불곡, 배를 세 척을 뿌수와 불곡. 제우(겨우) 고쳐가고 시니까(있으니까) 빗지와서 살 수가 없어. 이러니까, 영감 보고 ‘우리 도망을 가자. 이 빗지와가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혼 서른 두어서넛 뗏는가 바, 나는 기억도 안나, 기억조차 안나. 그래서 밥을 사올나을 굶고 입을 것도 엇고(없고) 옷도 다 팔아 먹고 엇으니까. ‘이제 어디레(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허니까. 소문에 들은 게 우리 영감 큰누님이 속초 산다 말만 듣고, 나 생각 ㄱ뜨른 북촌서 ㄱ뜨른 조천 감마니(가는 것만큼), 주문진서 조천 감마니 혈건가. 동네 뱃깃땔(바깥 [外]에를) 안 커보곡, 부산까지 오라서 이 강안도까지 오니까. 주문진이든, 속초머는 우리 므을 ㄱ뜨민 조천만이 허믄 걸영 가게 뉘서. 정월 초사은날, 초이튼날허고 초사은날 밤의 얘기 하나 업고 나서니까. 오다봐도 수천 리라. 피란 오는 사름덜은 그리 고생 안 헛데. …<중략>… 제우 오다가 나가 ‘돈이 백팔십 원 있다.’고, 영감 보고 찰 타자고. 그래서 걸어오다 걸어 오다 버치니까.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나 어제 배에 줄 걸린 거 끌러가고 돈 백팔십 원이 있는데. 그런데 선덜 초이튼날, 선덜 구믄날쫓 물엔 들어간 거 같애. 그래서 돈 백팔십 원을 놓고 차를, 그 땐 완행이여, 남저덜 조수라고 탕 멩기는 거. 그건 손을 들르니까. ‘백이십 원을 달라.’허데. 그래 백이십 원 주고 찰 타서 속초 오니까. 집은 십 리 하나 썩이고 씨누이가 어디 사는 줄도 몰르고. 그래도 침 ‘죽을 남(나무) 밋뵤(밑에) 살 나무 있다.’고, 어디서 “웨삼춘(외삼촌)” 허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보니 씨누이 아덜 이라. 그래서 따라 가니까. 씨누이 식술(식술)도 으숯 식술 땔(밥) 굶업고. 그래서 인제 바닷가일 좃앗져. 바닷가일 좃으믄 내가 해녀 할 줄 아니까, 먹고 살게라 그래서. 그 때 시절에 뭐 고무옷이 엇었나. 뭐 있나, 뭐 사루마다(さる-また[猿股], 남자용 팬티) 하나 입고 맨몸에 들어갈 때. 좃으니까, 그럭저럭 허다보니까, 이월 덜 쫓 뉘어서. 이월 덜 뉘니까. 뭐 해녀 무렌 허 쫓다고, ‘혼 번 나가본다꼬’ 허니까. 해녀들 만나믄 ‘조합 이턴 못 들어가게

한다.’고, 바렌 책도 안허더라고. …<중략>… 해녀덜은 맘에도 누게 하나 말힐 사름이 었어. 조합에설 오던가. 뭐 어디 수산과에설 오던가. 말하나? ‘해녀 모임 잇다고 저 시청으로 오라.’ 해서 가며는, 저 부얼리 해녀하고, 여깃 해녀 허고, 혼 오십 명 뉘더라고. 혼나 말힐 사름이 었어서, 내가 나서서 말을 허니까. 할머니 해녀회장을 허렌. 해녀회장 해야 뭐 이름 성명 든 것도 아니고, 그자 해녀 지호(지휘)만 헤렌. 그래서 멧 년 동안 했져.(pp. 196-199)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제주도를 떠나 부산에 도착한 후에 거제도도로 가서 약 3년간 물질을 하다가 새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강원도로 명태잡이 가는 남편을 따라 주문진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명태잡이 어선 세 척이 과도에 파손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빚을 탕감할 길이 없자 32세 무렵에 이기순은 시누이가 사는 속초로 무작정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했다. 속초로 이주할 당시의 江原道 東草市 朝陽洞 扶月里는 지금의 靑湖洞인데, 靑湖洞과 東明洞의 해녀수는 5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미 속초에서 거주하고 있던 해녀들 중에 어업조합이나 시청에 해녀들의 권익에 대해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기순은 해녀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해녀 회장을 몇 년 동안 맡았다고 한다. 이기순의 제보에 의하면 강원도 속초에서는 자신이 채취한 해산물은 전부 자신의 소득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경남 거제도에서는 미역을 채취하면 어장 주인은 6할, 자신은 4할을 받았다고 한다. 본토에 출가한 해녀들이 본토인에게 권익을 수탈당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상북도 지역인데, 조선일보 1959년 6월 22일자 “피땀 흘려 남 좋은 일 : 海女集團告訴事件”¹⁸⁾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리하여 1967년 2월에는 경상북도 감포·양포·구룡포 어업조합장 명의로 제주도 해녀 1,070명에 대한 ‘입어관행권 소멸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¹⁹⁾

18) 출가 해녀들은 漁場賣買 등 收奪이 심해지자, 당시 慶北浦項地方海務廳 관내의 九龍浦·良浦·甘浦·大浦 등의 各漁業組合을 상대로 大邱地方檢察廳에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기사다.

19)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p. 375.

(조): 할머니가 가본 디가 부산에 조금 잇다가, 거제도 잇다가, 주문진 잇다가, 여기 세 군데만 잇었구나. 다른 덴 안 가나수파?

(제): 주문진은 오라서 해넌 줄도 몰르고, 배 임제 각시라고, 그자 배만 부리다가 오라부니 몰르고. 여기 오라서 밥을 굶게 됐니까, 뭐 물에 가며는 뭐 돈으로만 베었지. 무슨 이녀 고생허는 건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동네 사름덜이 그랬어, “아이고”, 우리 영감이 송가거든 “송씨네 할머니, 씨 째는 달아져도 송씨네 할머니 빼는 안 달아질거다.” 그랬는다.(p. 230)

(조): 그 거제도에 있을 때는 삼 년 동안 있을 때 할머니가 그때는 주로 뭘 해수파? 미역?

(제): 미역.

(조): 미역허고 또?

(제): 미역 해가, 반 갈라. 바다 임제(임자, 주인)는 십 분지 육을 먹고, 사분만 이녀이(자기가) 먹은 거야.

(조): 경허니까, 잡은 거는 뭐 잡아수파?

(제): 미역밖에 엇지, 미역. 경헌디 여긴 오니까, 주문진은 오라서 배 가지고 오니까. 무레질 허는 줄 몰르고. 그래서 여길 오니까. 여기 할머니 혼 분이 “느 제죽야 아난디야?” 그러더라고. “제주도노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무레질은 시작했는디, 백 명이 가도 일등이고 나가 잘했어.

(조): 상군이었구나, 대상군.

(제): 어영, 상군도 그런 상군이 엇지. 여기도 와서 그런디, 뭐 벨양(별명)이 머구리 상군이라.(pp. 207-208)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이 주문진으로 이주했을 때는 남편이 명태잡이 어선 선주였기 때문에 물질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속초로 이주해서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다. 생활고로 인해 다시 물질작업을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별명이 남자 전문 잠수부를 일컫는 이른바 머구리로 불릴 정도로 물질 기량이 아주 뛰어난 대상군이었다고 한다.

끝으로 본토인과의 葛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본토 사람들의 제주도 출신 해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이는 다음에 제시한 이기순의 구술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 할머니 이름이 이자 기자 순자. 멧 년도에 태어나수파. 올해 연세가?
(제): 칠십오곱. 여기 내가 올 적의는 혼 십 리라도 집 혼나 이시나 마나 했
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니까 집을 침 먼저 아까 들린 집 앞에다가 집을 그
땐 우리집이 새집이라. 그래서 그 때 십스만 원 줘네, 집을 혼 채 사서 살았
는다. …<중략>… 그 때 시절에 뭐 어촌계도 몰르고, 뭐 해녀라꼬 혼든
뭐 여기 오니까, 뭐 거저 밥 얻어 먹으러 멧기는 거나 취급허더마는 이젠
멧 년도인지 모르지. 해녀 어촌계에 싸와 들여놓고, 어촌계로 허니까 해녀
를 좀 크게 생각허더라고. 아, 이거 해녀 제주도 해녀가 높은 사름이구나.
그 다음에 또 저번 때 이디 해녀 오라도 그 말허곡. 한 번은 물에 들어신디,
할머니 빨리 나오라꼬 하니까. 나오니까, 해녀들 요기 앉아서 물건을 풀아.
요기 회 파는 앞에다가 조개도 파다 놓고, 섭도 해다 놓고, 뭐 벨 거 다 해
다 파는 디, 거길 못 앉게 해서, 해녀를 다 물레레 해녀 물건을 다 물에 들
이칠라꼬, 들이쳐 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개새끼야, 제주도선 해녀 양
성시길라고 애를 써는디, 느그들은 왜 해녀를 덜 보느냐.” 하니, 그놈이 나
신데레 허는 말이 “이 개그든 년아 제주도 살지 왜 오랏느냐.” 해서, 내가
그 놈 허릿덜 딱 거머채고, 물레레 들어갈라꼬 허니까. 우리 이웃엿 아가
“할머니, 할머니 참아, 할머니 참아.” 해서 그란해도 그래가꼬 막 웃어서,
짐녕 사름은 젊은 사름이고, 난 혼썰 늙은 사름인디 나신디렌 그놈이 와서
커피 혼 잔 사주고 “잘못했습니다.” 사팔 허는디. “짐녕 여자한테 욕을 너
무 들어서 안 헌덴, 사과를 안하겠다.” 해서 이젠도 봐지면 인사를 허고 멧
기긴 멧기는디. 그 때꺼지만 해도 그렇게 해녀 나쁘게 생각허더라고. 그런
는다.

(조): 그 때가 멧 년도쯤 되어신디 마썸.

(제): 혼 오륙 년 되엇지.(pp. 193-195)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이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 부근으로 이주해
올 1956년 무렵만 하더라도 이 일대는 10리에 집 한 채가 있을까말까 했
다고 한다. 강원도 속초에서 물질작업을 해서 얻은 소득은 어촌계비만
내면 전부 자신의 소득이 됐지만 제주해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박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토인들이 제주
해녀에 대한 인식은 구걸하는 거지로 취급할 정도였다고 한다. 해녀들이
속초시 동명항 방파제 입구에 좌판을 벌여 놓고 채취한 해산물을 장사
하던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본토인과 제주

해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은 해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당함을 항의하고 권리를 되찾게 되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또한 매년 시월 초사흘날에 열리는 속초시 설악제에 해녀들을 무대에도 올리는 것도 본토인과 융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라톤 영웅 황영조가 해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제주해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텔레비전에서 ‘물로 뱅뱅 돌아진 섬의 점심 굶영 무례질 해영’과 같은 사실의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방영하면, 속초에 정착한 해녀들은 해녀들 판명 낸다고 이기순에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부르지 못하게 말렸다고 한다. 이는 해녀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면에는 해녀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부산 용호어촌계 해녀를 조사 연구한 최성애의 견해와 같이 “물질작업과 해녀에 대해서는 천한 중노동으로서 부정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물질을 즐기고 있었다. 현재 무엇보다도 해녀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소득이며 이 고소득이야말로 해녀로서 현존케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⁰⁾고 본다. 현지 본토인들이 해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러한 해녀들의 고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창자의 성격과 노래 인식

먼저 이기순과 인터뷰한 생애담을 바탕으로 이기순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제): 한 번은 물에 들어신디, 할머니 빨리 나오라꼬 하니까. 나오니까, 해녀들 요기 앉아서 물건을 풀아. 요기 회 파는 앞에다가 조개도 파다 놓고,

20) 최성애, <해녀의 이주 생활사-부산 용호어촌계 해녀에 관한 사례 연구->, 《水産業史研究》, 水産業史研究所, 1995, p. 84.

쉽도 해다 놓고, 머 벨 거 다 해다 파는 디, 거길 못 앉게 해서, 해녀를 다 물레레 해녀 물건을 다 물에 들이칠라꼬, 들이쳐 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개새끼야, 제주도선 해녀 양성시길라고 애를 써는디, 느그들은 왜 해녀를 덜 보느냐.” 하니, 그놈이 나신데레 허는 말이 “이 개ㄱ쁜 년아 제주도 살지 왜 오랏느냐.” 해서, 내가 그 놈 허릿딜 딱 거머쥘고, 물레레 들어갈라꼬 허니까. 우리 이웃엿 아가 “할머니, 할머니 참아, 할머니 참아.” 해서 그란해도 그레가꼬 막 웃어사, 짐녕 사름은 젊은 사름이고, 난 흐쉴 늙은 사름인디 나신디렌 그놈이 와서 커피 혼 잔 사주고 “잘못했습니다.” 사팔 허는다. “짐녕 여자한테 욕을 너무 들어서 안 헌텐, 사과를 안하겠다.” 해서 이젠도 봐지면 인사를 허고 멍기긴 멍기는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널 나쁘게 생각허더라고. 그렌는다.(p. 195)

(제): 막 옛날은 그러니까 육지 오라서도 누가 건드리기만 건드리민, 두렁박을 혼 놈이 이제 뜬 밭을 가 물레허니까 바가지를 깨부러서. 우리도 막 시우허고 막 난리가 났어. 바가지엔 흰 거 생명줄인디. 우리는 고발허겠다. 그러니 막 어촌계장이 막 벌고 그렇게 다 해보고. 해녀덜, 그때 시절엔 뭐 해녀 사름으로도 안 알아도. 이제는 봐, 육지 사름덜 해녀덜이엔 허믈 막 잘 생각허고. 여기서 왜 황영주라고 허나?

(조): 예, 황영조.

(제): 아, 그거 해녀 아덜이라고. 이제는 여기 저녁 때 돼머는, 지금 가머는 해녀덜 물건 풀거여. 요 앞의 다라예 놓아서. 그런디 그때 시절의 한 오 년 전의 저기 다라이 못 놓게 했어. 그러니 좋다. 우리는 여기 질을 막겠다, 해녀는. 여기 질을 막고, 느그들 해보자고. 우리 물건 못 풀게 허믈 해보자. 우리 저것도 싸와가꼬 해녀덜 거기 앉게 허고. 해녀덜 또 그 우에다가 물 받아가꼬 물건 살루는 것도 해주고. 해녀도 권리를 좇아서 여기서도. 경헌디 저 청호동 해녀덜은 그런게 었어. 해도 시장 가 풀지 여기서 푸는 것도 었고. 그러니 청호동 해녀덜은 살기는 막 힘들어. 경헌디 여긋 해녀덜은 잘 벌어, 잘 벌고. 해녀 권리를 막 여기서 좇아서.(pp. 204-205)

인용문은 강원도 속초시 토착민들의 제주 출신 해녀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본토인들은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 부둣가에서 좌판을 차려 놓고 파는 것을 막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해녀의 물질작업 도구인 두렁박을 부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본토인의 해녀에 대한 천대는 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 제주 해녀들은 본토인의 부당한 학대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본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이 인용문 속에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본토인이 자신들의 행위를 누우치고 용서를 구하자, 이기순은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하고 본토 주민들과 화해를 한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해녀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고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이는 이기순이 속초시 동명동에서 해녀회장을 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이기순이 불의부정한 것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의식은 아래 제시한 인용문에서 보듯이 어린 시절 들었던 해녀들의 항일 시위 이야기가 이기순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제): 해녀노래가 많지, 이게 팔저 혼탄. 해녀는 다른 걸로 허는 게 아니고, 팔저 혼탄을 허는디, 옛날 우리가 크니까. 해녀가 제주도서 막 일제시대에, 막 그냥 싸움을 닳는데, 해녀가 일본놈덜 총살이 무서와도, 해녀가 막 우리 신랑을 달라, 우리 신랑을 몬딱 군인을 보내볼고, 여저덜이 살 수가 어시난. 관덕청 마당을 두렁박 들고, 빗창 들고 막 시우(시위). 지금 그트면 막 시우 허는 거지. 옛날 우리 크기 전에 막 들어갔다그래. 그러기 때문에 해녀는 두렁박 하나 들러서, 여기 쪽옷만 입고서 땡겨도 거침이 없다 그래. 죽고 살고 몰라가 그 때 막 일본놈 허고 막 대치했데. 이제 우리도 밥을 주고 쌀을 달라 신랑은 왜 다 군인 다 보내두고,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구느냐. 일본놈 허고 대치해가고 제주서는 까구리라고 여기서는 굴갱이(호미, 鋤) 닳은 거 갖고 땡기지 마는 제주서는 빗창 그거 들르고 쪽옷바람(속옷[內衣] 바람)에 관덕청 마당에 가서 막 일본놈허고 붙었데, 옛날 시절에.

(조): 음. 할머니가 몇 살 때쯤이다. 그 때가?

(제): 어영, 우리는 낳지도 안 했지. 안 낳을 때 우리가 크니까 그 말을 허더라고.(pp. 203-204)

이처럼 이기순은 불의에 저항하는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도 남을 위하는 이른바 이타행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또한 이기순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인심을 베푼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난다.

(제): 또 물때가 었다고, 여기는. 아침의 밥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저녁의 밥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물때가 었는 거여. 제주도나 전라도 ㄱ짜 물때가 어시니까. 그자 그냥 이녀 마음대로 강 벌어오곡. 그러니까 돈을 몰라가꼬, 나신디 거랭이도 오몬 붙어 쥐불곡. 팔 었는 사름이고, 손 었는 사름이고, 질레서 이래 밀엿 뎡기는 사름 보른 못 넘어가. 주머니 털어붙어야 돼 이런디. 자아, 이딧 군인, 이제는 저 해양경찰대 순경덜이 사는데, 그뎨 군인 초삿막이여. 군인을 혼 백 명을 내가 집관해서 보냈어. 경헌디 제주돗 아으가 혼나 왓더라고. 한림 아은디? 소섬아은디? 나한티 왓는다. 그계 상뎡인디 그렇게 아으덜을 잘 때려. 그래서 나 그건 상대 안 해봐서, 사름 때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무신 작년꺼지도 훗아오는 아으덜이 잇어. 다 장개 가고 살림살고 그래도, 돈도 지금도 그뎨 꺾준 돈덜 못 받은 놘도, 저 전라도 아으덜도 다 편간. 돈 벌른 아무나 쥐 불곡. 지금도 못 받은 계, 혼 이천 만 원 뎡연. 그래도 며 이젠 돈벌 생각도 었고, 그자 이렇게 사는 거라.(p. 213)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물질하여 번 돈을 자신보다 딱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거지, 신체불구자, 군인이 그들이다. 제주도가 고향인 군인이더라도 남을 해치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았다. 고향이 전라도이건 제주도가이건 간에 지연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기에 그렇다.

(조): 할머니가 가본 디가 부산에 조금 잇다가, 거제도 잇다가, 주문진 잇다가, 여기 세 군데만 잇었구나. 다른 덴 안 가나수짜?

(제): 주문진은 오라서 해년 줄도 몰르고, 배 임제 각시라고, 그자 배만 부리다가 오라부니 몰르고. 여기 오라서 밥을 굶게 뎡니까, 뉘 물에 가며는 뉘 돈으로만 배었지. 무슨 이녀 고생허는 건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동네 사름덜이 그랫어, “아이고”, 우리 영감이 송가거든 “송씨네 할머니, 씨 곱은 달아저도 송씨네 할머니 빼는 안 달아질거다.” 그랫는다.(p. 230)

또한 이기순은 근면하고 자립성이 강한 제주여성의 기질을 소유한 인물이다. “씨곱(‘쇠붙이’의 강원도 사투리)은 달아도 송씨네 할머니 빼

(‘빠’의 강원도 사투리)는 안 달아질거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식될 정도로 이기순은 근면한 여성이다. 가난한 삶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남다른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기순이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해녀들은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이기순은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대해 남다른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제): 뭐 해녀노래 제주서 허는 건. 그 때 나 혼 번 국악인 허는 걸 보니까, 우리 허듯 안허데. 국악인 아으덜 배와 주는 거 내가 뺏거든. 그러는디, 우리 허듯 안허드라고.(p. 200)

(제): 저저, 그거 혼 번 거 국악인 허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굶어서, 어, 아침 굶어 무레질 헤영 한 푼 두 푼 모여낸 돈이 정든 님 용돈에 모지레 간다.” 그러더라고 국악인허는 거 내가 즈쫓이(자세히)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 요 해녀노래도 또 뜯나게, 애기덜을 ㄱ리차(가르쳐) 주더라고. 국악인 여저가 나와서 그 여저가 김 머시라 허던데, 그 여저가 테레비 나와서 국악인 ㄱ리치는 거 보니 그러더라고.(p. 218)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전문적인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와는 다르다고 했다. 사실 현장에서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역동적인 가락으로 불려진다. 전문적인 소리꾼이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는 가창 위주로 불려지기 때문에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가락이 사뭇 다르다. 이는 표준악보로 불려지는 <해녀 노 젓는 소리>가 그만큼 많이 변형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곡된 <해녀 노 젓는 소리>는 학생들 사이에도 꽤 번져 떼지어 놀 때에도 가다가 유쾌하게 합창하기도 한다. 1960년대 초 제주도의 대표적인 창민요인 <오돌또기>·<이야홍>과 함께 이 <해녀 노 젓는 소리>가 편곡되어 전파매체를 타고 널리 보급되는 한편, 각종 문화제전 때의 합창에 따라 번져나갔다.²¹⁾ 그것은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기연인 노 젓

2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는 노동이 사라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제): 이젠 나 강안도 오라서, 팔저 혼탄을 허는 노래를 자꾸 무례를 가면 나 혼자 불러. 이러는디. 뭐 제주도 노래도 많애. 소섬 사름은 또 뜬나게 허 더라고. 소섬 사름덜은 우리 ㄱ찌 안해. 우리덜은 이 북촌이엔 현딘 전부 해녀 배가 그때는 터우엔 현 거, 배엔 현 거, 혼 집의 두세 칙씩은 꼭 찻 주.(pp. 201-202)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자신의 고향인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에서 부르는 <해녀 노 짓는 소리>와 북제주군 우도면(소섬)에서 부르는 <해녀 노 짓는 소리>는 다르다고 했다.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창자의 가창능력과 지역에 따라 사설과 가락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정적 사설은 공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영, 난 여기서 관광계 들영 관광을 잘가. 관광을 가민 이제 목소리가 없어. 목청이 없어. 경허민 이제 나무 하나 심어가꼬 ‘이여싸 이여싸’ 산에도 가민 막 해노민 여저덜 노래 보겐다고, 관광왔던 사름이 다 덤쳐, 나 노래 보겐다고. 나가 막 수건 머리에 돌르곡 허며는 목소리가 없으니 다른 노래는 못허잖아. 그러며는 ‘에이, 이놈의 것, 나 뱃노래나 현다.’ 작대기 하나 심고는 막 해노민, 관광 온 사름덜 그거 구경온다고 막 난리가 낫어.(p. 221)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채록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부딪치는 어려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보자가 비협조적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해녀 노 짓는 소리> 제보자인 해녀들이 채록자와 일면식도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현지 채록 갔을 때 적극적인 협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경우에도 조금만 부르다가 그만두기 일췌이다. 똑같은 노래를 왜 또다시 부르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게 그것이다. 그런데 이기순은 관광계를 들어 관광을

갔을 때도 관광을 온 사람들 앞에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부를 만큼 적극적인 제보자 중의 하나다. 그만큼 이기순은 상당히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조): 검질 메는 노래 알아지쿠과.

(제): 검질 메는 노래도 몰라.

(조): 발 불리는 노래?

(제): 발 불리는 노래. “어어어어어 어얼러러러러러”하는 거지 뭐. 밧 불리는 노래, 무신 노래 헐꺼라.

(조): 그건 혼 번 해봅써.

(제): 그건 나 해보진 안 했지. 듣기만 했지.

…<중략>…

(조): 예.

(제): 밧 불리는 노래도 그래 들어 봤지. 다른 거는 나 안 들어 봤지, 뭐.

(조): 비 올 때 부르는 노래?

(제): 영, 비올 때.

(조): 비야 비야.

(제): 그런 거 몰라.

(조): 어린 아이, 머리 뽀뽀 깎은 중머리 현 아이 놀리는 노래 중 중?

(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뭐 나 제주도서 오래 살지도 안허곡 말허단 보 난 동네 배깃떨 나가야 배웁지, 뭐.(pp. 222-223)

인용문에서 보듯이 필자가 이기순에게 <검질 메는 노래(김매는 소리)>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밧 불리는 노래는 듣기만 했고, 노래를 해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밧을 밟게 하기 위해 조랑말을 몰 때 부르는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얼러러러러러”라는 소리만 안다고 했다. 이를 통해서 이기순은 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기순은 가락만 있고 특정한 내용의 사설이 없거나 의성어만을 부르는 것은 노래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밧 불리는 노래(밧 밟는 소리)는 들어 보기는 했지만 불러 보지 않았다는 것은 조랑말을 이용하여 밧 밟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실제 노동을 하면서 불러 본 적이 없는 노래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기순은 노

동요는 작업을 하면서 불러 보아야 배울 수 있고 또한 제대로 부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노동요의 전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업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작업과 민요가 분리되지 않아야 민요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기순은 또한 자신이 불러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는 모른다고 했다. 동요인 비올 때 부르는 노래, 아이 놀리는 노래 등이 그것이다. 어린 시절 집 밖에 나가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조): 경허고 그 언제 들어보니까, ‘군대환은 왔다갔다.’ 그런 노래도 잊지 아니허우파. 군대환, 옛날에 일본배.

(제): 어영, 허허허허허. 군대환은 우리 커울 때 제주도 왔다갔다 했어.

(조): 경허난 노래에도 보난 ‘군대환은 왔다갔다, 보인다.’ 그런 노래도 잊지 안허여 마썸.

(제): 뭐, ‘연락선은 집을 삼고, 군대환은 집을 삼고, 이제 저 어디고 오사까, 시모노세끼 그런디 간다.’고 노래는 들었나도, 거 나 몰라.

(조): 한 번 아는 대로만 해봅써.

(제): 못 허여 그거는, 뭐.(p. 230)

제주도에는 1920년대부터 제주~일본 대판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君代丸’ 등의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었다. 그래서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 중에 ‘君代丸’이라는 소재가 등장한다. 필자는 이기순에게 “군대환은 왔다갔다.”라는 사설의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아느냐고 묻자. 이기순은 “연락선은 집을 삼고, 군대환은 집을 삼고, 이제 저 어디고 오사까, 시모노세끼 그런디 간다.”고 하는 노래는 들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실제로 불러 본 사설은 기억할 수 있고 가창할 수 있지만, 불러보지 않고 듣기만 한 사설은 기억은 할 수 있어도 가창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요의 사설을 실제로 가창해 보았거나 자신의 체험과 관련이 있는 사설은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승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술한 바 있듯이 이기순은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의 사설은 스스로 창작하여 불렀지만, 남이 부른 사설은 기억은 하지만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사설 창작 능력과 가창 능력과는 상관관계

가 없음을 보여준다.

(조): 해녀노래를 한 곡지만 더 해줍써.

(제): 영, 네나 그거지 뭐.

(조): 혼 번 더 해봅써.

(제): 그거 무시거 자꾸 불렁 뭐 험라고.

(조): 말이, 가사가 모르는 말이 이시니까.

(제): 불러 봐야 그 노래, 불러봐야 그 노래. 무례 가면 안 불러난 노래도 자꾸 불러지는데, 집의나 앉이니까 또 안 나오네. 하하하하하.(p. 224)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구연 장소는 바다 위를 달리는 돛배이다. 간혹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가면서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이기순이 지금까지 불렀던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실 말고 또다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기순에게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한 번 더 불러 달라는 유도 질문을 했다. 그러자 이기순은 물질을 가면 안 부르던 <해녀 노 젓는 소리>도 자꾸 불러지는데, 집에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나온다고 대답했다. 이는 <해녀 노 젓는 소리>가 가창 기연인 노 젓는 일과 단절된 지 오래되었고, 가창해 본 지도 오래되어서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구연 장소인 바다에 가면 노래를 자연스레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공간인 집에서보다는 자연적인 공간인 바다에서라야 사실이 잘 연상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민요를 본원적 가락과 사실로 가창하려면 실제로 가창했던 현장의 상황과 유사한 공간적, 환경적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기순이 <해녀 노 젓는 소리>를 현재까지 전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 여기 그러면 해녀노래 부르는 게 제주도 북촌허고, 거제도 거기서 많이 불렀고, 여기서는 안 불러 봐수파?

(제): 여기서는 안 불러 봤지. 여기선 불를 일도 었고.

(조): 아니 그냥.

(제): 아니, 영 히영갈 때 혼자서.

(조): 하여갈 때 불러 붙셔.

(제): 네나 그 노래라.(p. 228)

(제): 그거지 뭐. 고향 갈라고 고향 생각나든 그자 집의 앉아서 또 밥의도 요샌 누엇다가 심심허른 이 노래 불러져, 혼자서.(p. 229)

(조): 설룬 노래 할머니가 지은 건 어수팍.

(제): 그자, 그거 허다가 말아. 경현디 또 저저 ‘물로 뱅뱅 돌아진 섬의 점심 굶영 무레질 해영’ 헌 것도 이제 텔레비에나 나오든 해녀들 욱해, 그렇게 제주사람 판명 내웁젠.

(조): 으응, 그게 아니다.

(제): 경허난 불르지 말라 그래. 그래도 난 심심허민 불러.(p. 232)

인용문에서 보듯이 강원도는 거제도나 제주도와는 달리 해엄처 가서 하는 물질인 이른바 ‘갯물질’을 주로 한다. 강원도에서는 뚝배를 타고 연안의 섬으로 물질을 나가지 않으므로 노를 저을 일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불러 본 일이 없다고 했다. 다만 물질작업장으로 해엄치고 갈 때, 집에서 고향이 생각나거나 무료할 때면 가끔씩 혼자 부른다고 했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부르는 장면을 방영하면, 본토에 정착한 해녀들은 제주도 사람을 판명 낸다고 욱하며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순은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심심하면 부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 기원이 사라진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순이 지금까지도 <해녀 노 젓는 소리>를 구연하게 된 원인이면서 계기이기도 하다.

(제): 해녀노래는 그자 팔자 혼탄 해영, 그자 갖다가 붙이면 다 웨는 거야. 다 붙이는 거야. 다른 건 없어.

(조): 예.

(제): 다른 거 뭐 유행가처럼 이레 붙이고 저레 붙이는 게 아니고, 그자 팔저 혼탄을 허른, 물에도 가든, 그자 설룬 노래만 나오곡.(p. 232)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자탄가의 성격이 강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순은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성격을 자신

의 팔자 한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실은 유행가처럼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떠한 사실이라도 갖다 붙이면 된다고 말한다. 이는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사실 내용과 무관하게 <해녀 노 짓는 소리>의 가락으로 부르면 모두 <해녀 노 짓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실 가운데 해녀 작업과 관련된 고정적 사실뿐만 아니라 물질작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정적 성격의 유동적 사실이 많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실이 다른 요종의 사실과 교섭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4. 맺음말

본고는 <해녀 노 짓는 소리> 연구에서 사실 분석이나 현장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에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소홀히 다루었던 민요 창자의 생애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창자의 생애와 당대의 사건들을 사실의 내용과 연관시켜 작가론적 관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민요 창자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고찰하려면, 창자의 삶의 양상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더라도 제보자가 구술한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술해야 한다. 다만 창자가 구술한 생애담을 기술하면 채록할 당시에 제보자가 지녔던 목소리의 억양까지 포착할 수는 없다. 제보자의 목소리가 문자로 정착하는 순간 화석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록자는 채록할 당시의 억양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제보자를 생애를 다룰 때 왜 심리학적 통찰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물질을 나오는 이유는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기순의 경우는 딸자식을 잃은 아픔을 잊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본토에서의 생활이 순탄한 것도 아니었다. 이기순이 겪었던 강원도 주민들과의 분쟁은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이 겪었던 정착의 어려움을 이야기함으로써 일종의 교훈적인 경계의 의미를 주고자 함이다.

창자의 삶의 체험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연한 생애와 민요 사

설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이기순은 자신의 체험을 사실로 형상화하여 노래했다. 사별한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객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그것이다.

해녀 물질작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유동적 사설은 자탄가 성격이 짙다. 이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며 받는 설움과 물질작업의 어려움이 그 직접적인 동기이다. 이러한 사설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노래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고 본다.

인위적인 조건에 따라 제보자의 생애담과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조사할 경우, 구연 현장은 채록자에 의해 설정된 것이며, 구연 상황과 조건도 채록자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채록자는 의도적으로 당대의 구연 현장을 설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연 현장 내에서 담화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또한 채록자는 제보자의 생애와 민요의 사설에 대해서 제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할 수도 있다. 채록자가 제보자와 전기적 생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질문 내용은 제보자의 특징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그러한 특색들이 제보자의 성격을 명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기순의 민요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규명해 보았다.

<참 고 문 헌>

- 康大元. 1973.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 강진옥. 1998. <여성 민요 창자 정영엽 연구>. 《口碑文學研究學》 第7輯. 韓國口碑文學會.
- 金科白. 1929.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 《三千里》 創刊號. 三千里社.
- 김영·양정자. 정광중·좌혜경 譯. 2004.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 金榮敦. 1965.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 김영돈. 1983. <제주도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金榮敦·金範國·徐庚林. 1986.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나승만. 1998.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조사와 사례 분석-서남해 도서지역 민요 소리꾼 생애담 조사를 중심으로->. 《口碑文學研究學》 第7輯. 韓國口碑文學會.
- 나승만. 1998. <삶의 처지와 노래 생산 양식의 상관성-村婦. 무당.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김안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第16輯.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류종목. 1999. <사천시 민요의 전승 양상>. 《韓國民謠學》 第7輯. 韓國民謠學會.
- 石宙明. 1968. 《濟州島隨筆》. 寶晉齋.
- 이성훈. 1987. <民謠 提報者의 生涯와 辭說>.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 이성훈. 2003.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崇實語文》 第19輯. 崇實語文學會.
- 이성훈. 2005.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성훈. 2005.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 李益泰. 金益洙 譯. 1997. 《知瀛錄》. 濟州文化院.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구술(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
- 조규익·이성훈·강명혜·문숙희. 2005. 《제주도 해녀 노 짓는 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민속원.
- 좌혜경. 2003. <제주 민요 歌唱者論>. 《民謠論集》 第7輯. 民謠學會編. 민속원.
- 최성애. 1995. <해녀의 이주 생활사-부산 용호어촌계 해녀에 관한 사례 연구->. 《水産業史研究》. 水産業史研究所.
- 한림화. 1987. 《제주바다 潛嫂의 四季》. 한길사.
- 홍미희. 2001. <민요 소리꾼 이남조 연구>. 《韓國民謠學》 第9輯. 韓國民謠學會.
- 후지나가 다케시. 1997. <1932년 제주도 해녀의 투쟁>. 《제주도의 옛기록》. 제주시 우당도서관.